"자활 능력 키우고 자립에 도움"

익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익산시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공동작업장을 건립한다.

10일 시는 자활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업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 능력을 배양해 점차 민간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활공동작업장은 지난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설계용역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익산지역자활센터와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80여명에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천동 248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작업장은 연면적 661.15㎡(200평)의 지상 1층 규모로 HACCP 시설이 설치된 공동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포장실 등을 갖추게 된다. 잔여 부지에는 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쌈채소 등 유기농산물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또한 전처리 시설과 식품가공시설을 설치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작업장 근로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익산지역자활센터와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28명과 함께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생산, 두부 제조, 집 수리, 스팀세차 등 32개 사업단에서 420명이 근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활공동작업장 건립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 능력을 키우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박차

군산시, 2022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추진 목표를 공유하고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지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중단없는 사업추진과 계획적 예산집행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본격적 태세에 돌입했다.

모든 부서는 계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에 집중하고, 신규 사업은 사전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철호 부시장은 "지난해 맡은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써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새해에도 위기 대응과 민생회복 양대 현안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부동산 불법 거래 뿌리 뽑는다

유관기관과 강력 단속 실시, 신규 분양 · 재건축 아파트 집중 단속…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익산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10일 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신고법 위반대상인 허위신고 3건에 대해 5천800여 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5건에 대하여는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익산시가 농가소득을 향상을 위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

시는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출하 시기 조절 등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농가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1개소 당 10㎡(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설치비용 중 부가세 환급금을 제외한 3백만원을 지원한다.

양곡을 제외한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천㎡ 이상 경작하며 익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부서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제고와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60대 이상 3차 접종완료 84% 접종 50대 2명중 1명 부스터샷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이상 중 84%가 코로나19 3차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08시 기준 코로나19 1차 접종은 87.58%, 2차 접종 85.07%, 3차 접종은 45.65%다.

이는 전국 1차 86.4%, 2차 83.8%, 3차 40.9%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으로만 보면 1차 접종 95%, 2차 93%, 3차 84%가 접종을 마쳐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접종을 시작한 18~29세도 98.21%가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12~17세도 56.88%가 2차 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 완료는 80세이상 80.89%, 70~79세 88.68%, 60~69세 83.40%, 50~59세 55.20%, 40~49세 30.34%, 30~39세 28.60%, 18~29세 26.26%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나면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이나 중증감염,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2차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부스터샷을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정헌율 시장, 익산형 소상공지원대책 총력 주문

정헌율 익산시장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정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소상공인 기본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1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 대책이 올해 우리시 첫 번째 과제"라며 "건물 하나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에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소상공인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상공인TF팀 중심으로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우선 발굴해 총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온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수당' 운영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인한 피해업종 범위도 넓어지고,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지만 피해를 입는 사각지대도 존재해 실질적 보상체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시장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소상공인 기본수당 틀을 모색하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계획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며 "2022년 첫 회기인 만큼 충분한 자료 준비와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되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에 따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 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익산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52만원, 창고와 축사는 최대 5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에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 추진 시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소자원과 청소행정계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새해 나눔으로 온정의 손길 줄이어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다.

10일 장미자 삼성생명 명예사업부장(상무)이 관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한끼를 위해 사골곰탕 1,680팩(1,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장 상무는 "주위의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군산시 이·통장협의회(회장 채규택)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채규택 회장은 "오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나눔으로 골고루 잘사는 군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기자